KIET

해외출장보고서

KIET 해외출장보고서 제11-86호

해외 동반진출 및 선진국 거래관행 실태 파악

- 주 현 선임연구위원(중소·벤처 기업연구실)

Ⅰ. 출장 개요

1. 출장자

- 주 현 선임연구위원 (중소·벤처기업연구실)

2. 출장기간

- 2011년 8월 18일 ~ 2011년 8월 25일 (7박 8일)

3. 출장지역

- 중국 상해

- 미국 팔로알토(샌프란시스코 인근)

4. 출장목적

- 해외 동반진출 및 선진국 거래관행 실태 파악

5. 출장일정

일자	방문처	면담자
8월18일(목)	-인천-상해 이동 -昆山三星電氣有限公司	-김종범(昆山三星電氣有限公司 총경리) 심덕보(昆山三星電氣有限公司 구매그룹장/부장) 이재철(昆山三星電氣有限公司 금융관리그룹장/차장) 이상근(삼성전기 LCR구매그룹 Group장/부장) 김상범(삼성전기(심천)유한공사 홍공/심천/상해IPC 총경리)
8월19일(금)	-蘇州新盛超淨化系統有限公司 -伊歐激光科技(蘇州)有限公司	-김연모(총경리) 김현철(관리부 차장) -변영식(부총경리) 박규현(경리)
8월20일(토)	-상해-샌프란시스코 이동	
8월21일(일)	-휴식	
8월22일(월)	-BWS Tech, Inc. -Become, Inc.	-Ryan H. Kim (President) -Baisub Lee (Staff Engineer)
8월23일(화)	-Tetradyne Inc. -SBDC Silicon Valley	-John J. Son (President) -Gail Buettgenback (Business Service Coordinator) Bob Lane (The Federal Technology Center, Counselor/Instructor)
8월24일(수) ~25일(목)	-샌프란시스코-인천 이동	

Ⅱ. 출장 내용

1. 중국의 진출 여건

□ 방문업체 및 주요 면담자

○ 삼성전기 현지법인 (강소성 쿤산시 소재)
昆山三星電氣有限公司

- 면담자:
  · 김종범(昆山三星電氣有限公司 총경리)
  · 심덕보(昆山三星電氣有限公司 구매그룹장/부장)
  · 이재철(昆山三星電氣有限公司 금융관리그룹장/차장)
  · 이상근(삼성전기 LCR구매그룹 Group장/부장)
  · 김상범(삼성전기(심천)유한공사 홍공/심천/상해IPC 총경리)

○ 신성엔지니어링 현지법인 (강소성 오강시 소재)
蘇州新盛超淨化系統有限公司

- 면담자:
  · 김연모(총경리)
  · 김현철(관리부 차장)

○ 이오테크닉스 현지법인 (강소성 오강시 소재)
伊歐激光科技(蘇州)有限公司

- 면담자:
  · 변영식(부총경리)
  · 박규현(경리)

□ 중국의 경제동향

○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고성장시대에 진입하여 2000~2010년 연평균 9.8% 성장을 달성하였음.

-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2009년 9.1% 성장에 이어 2010년 10.3% 성장을 달성하였음.

○ 그러나 향후에는 과거와 같은 두 자리 수의 성장률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11년에는 인플레이션 압력 하에 투자, 수출 감소로 9.0%로 둔화될 전망임.

- 중국은 2011년 12·5 규획을 시작하는 등 경제적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12·5 규획에서는 GDP 연평균 성장률을 7%로 제시하고 있음.

-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조화사회(和諧社會)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국경제의 중요성은 점증할 것임.

- Global Insight에 따르면 2028년 중국의 GDP는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음.

- 중국 기업의 성장도 두드러져서, 2010년 Fortune 글로벌 500대 기업(매출액 기준)에 중국기업이 46개 포함되었음(미국 139개, 일본 71개, 한국 10개)

  · 대부분 국영기업이지만 동풍자동차, 화웨이(華爲) 등 민간기업도 포함되어 있음.

□ **방문업체별 면담 내용 및 애로사항**

○ 삼성전기 현지법인 (강소성 쿤산시 소재)
昆山三星電氣有限公司

- 삼성전기는 세계 5위 종합부품회사로서, 중국에 5개 법인을 두고 있는데, 쿤산법인은 그 중 하나임.

  * 쿤산법인, 천진법인, 고신법인, 동관법인 등

- 쿤산에 진출한 한국기업으로는 삼성전기 이외에 LG전자, KCC, POSCO 및 약간의 중소기업이 있으며, 쿤산에 진출한 기업의 대부분은 대만계임.

- 쿤산법인은 ACI 사업부 소속으로 2009년 1월에 기업을 설립하였으며, 동년 10월에 대만회사를 인수하였고, 2010년 7월에 양산에 돌입하였음.

  · 쿤산법인은 mobile 기기에 들어가는 마더보드를 생산하며, 장치산업의 성격을 갖고 있음.

- 쿤산법인은 환경친화적 시설을 갖추고 있음. 중국의 환경 법적 기준치가 한국보다 오히려 더 높은데, 중국 당국은 외자기업에만 엄격하게 법적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음.

- 원자재는 중국계 12개사, 한국계 5개사, 일본계 2개사 등 총 19개사에서 조달하고 있음.

- 외주업체는 대만계 1개사, 싱가포르계 1개사, 한국계 1개사 등 총 9개사로서, 대만계 및 싱가포르계 외주업체는 CNC 공정을 수행하고 있고, 한국계 1개사는 CO2 공정을 수행하고 있음.

- 종사자 수는 총 1,100명으로서, 365일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으며, 검사공정이 많아서 인력이 많이 필요한 편임.

- 우리나라의 원소재, 장비·설비 산업이 너무 취약하여 한국기업은 일본

기업에 비해 원소재 조달 및 장비·설비 조달비용에서 크게 불리함. 우리나라 설비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능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매우 취약함. 정부가 애써줘야 할 부분임.

- 삼성이 중국 진출할 때 중소기업과 동반진출하는데, 중소기업은 100% 삼성에만 의존하려고 해서 훗날 삼성이 거래처를 변경하게 되면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됨. 중소기업의 역량을 제고하여 다른 거래처를 스스로 찾아야 함.

- 한국 중소기업이 글로벌화할 때 대만기업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음. 쿤산지역에 대만기업이 7,000개 있음. 대만기업은 소규모 투자를 하면서도 실속 있게 운영하고 있고 사장실도 검소함. 이에 비해 한국기업은 건물, 설비가 과다하며 사장실도 사치스러운 경우도 있음.

○ 신성엔지니어링 현지법인 (강소성 오강시 소재)
蘇州新盛超淨化系統有限公司

- 오강 현지법인은 2003년 설립하여 2004년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음.

  · 신성엔지니어링의 경우 중국, 베트남에 현지법인이 있으며, 미국, 싱가포르에 지사가 있음.

- 매출은 2010년의 경우 150억원으로, 2011년에는 3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당초 200억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상반기에 목표를 거의 달성함에 따라 2011년 매출목표를 상향조정하였음.

- 현지법인은 매출에서 설비와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 5:5 정도인데, 최근에는 3:7 정도로 공사비중이 높아졌음.

- 종업원 76명(공사인원 포함)으로서, 공사는 하도급업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음.

  · 공사 하도급업체를 활용할 경우, 원자재(철, 알루미늄)는 선급금을 100% 지불하며, 제품에 대해서도 선급금을 주는 경우가 있음.

- 현지법인의 매출이 증대함에 따라 현 공장부지에서 증설하려고 했으나, 인근에 지하철이 들어설 계획됨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대토를 제공하여 이전할 계획임.

- 신성의 현지법인은 삼성, 엘지, 중국 현지기업 등 다양한 기업과 거래하고 있으며, 삼성, 엘지 등도 신성과만 거래하고 있지 않음.. 적어도 신성의 경우에는 삼성, 엘지등과의 거래에서 일방적 갑·을 관계는 아님.

○ 이오테크닉스 현지법인 (강소성 오강시 소재)
伊歐激光科技(蘇州)有限公司

- 한국 본사에서 면세로 부품을 들여와 현지공장에서 부품을 결합하여 제품을 만들어 다시 한국 본사에 보내는 것이 주요 활동임.

- 천진에 공장이 있었는데 천진공장은 당초부터 저렴하게 생산하여 한국에 보내려는 목적이었는데, 오강공장을 중국 현지시장을 염두에 두고 시설을 확장하여 이전한 것임.

  · 현재 천진공장을 폐쇄하고 사무소만 운영하고 있음

- 종업원은 80명 정도로서, 대부분 외지인이며, 소주 인력시장에서 선발해 채용하고 있음. 대졸 초임은 2,500~3,000위안(월, 기본급 기준)임.

  · 기숙사, 식당을 운영하고 있음.

□ 시사점

○ 중국의 사회, 경제, 문화는 개방 이후 지금까지 크게 변화해 왔던 것처럼 현재도 급속한 변화가 계속 진행 중임.

- 중국 경제는 상당 기간 동안 높은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므로, 우리 진출기업도 중국 경제와 함께 성장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국 기업을 활용한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요컨대 현지화 경영을

강화해 나가야 함.

○ 중국의 사회, 경제, 문화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경영상 위험 요소가 상존함.

- 중국 정부의 정책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중국은 노동, 환경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외국기업에 해당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진출기업은 철저한 준법경영을 실시하고 현지 사회에의 공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인력 문제가 매우 심각하므로, 중국의 노동시장 변화를 고려한 중국진출이 추진되어야 함.

- **노동력 공급**: 경제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농촌지역에서의 노동력 공급이 감소하면서 인재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특히 중국 기업이 성장하면서 외자계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하락하고 있음.

- **임금 수준**: 전반적으로 임금인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최저임금을 연평균 13% 이상 인상하고, 최저임금을 해당 지역 평균임금의 40% 이상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임.

- **사회보장 부담**: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업의 보험료 부담도 증가하고 있음.

  · 중국에 소재한 기업이 노동자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으로는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생육보험 등이 있는데, 기업의 부담률이 지역마다 다르지만 임금의 30% 이상 수준임.

< 중국 내 외국인 취업자 5대 보험료 납부율 >

구분	양로보험 (퇴직연금)	의료보험 (질병치료)	실업보험 (실업급여)	공상보험 (산재보상)	생육보험 (출산비보조)
상하이	기업 22% 개인 8%	기업 12% 개인 2%	기업 2% 개인 2%	기업만 부담 0.5%	기업만 부담 0.5%
베이징	기업 20% 개인 8%	기업 10% 개인 2%+3元	기업 1% 개인 0.2%	업종별로 기업만 부담 0.2~2%	기업만 부담 0.8%

자료: KOTRA

- **노동쟁의**: 노동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노동자 권익보호가 강화되면서 노동쟁의가 급증하고 있음.

  · 2006년 32만건, 2008년 69만건, 2010년 80만건으로 급증

- **직업의식**: 신세대 농민공은 교육수준, 직업,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반면, 직업에 대한 충성도는 낮아서(3高 1低), 보수와 전망을 중시하며 근로환경 개선에 관심이 크고, 불합리한 대우에는 과감하게 이직함.

  * 농민공이란, 중국에서 비농업분야에 종사하는 농업호구 인구로서, 주로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 하급 이주 노동자를 의미함.

○ 에너지 문제도 정상적인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중국의 에너지 사용량이 매년 급증하여 2011년 6~9월에는 중국 연간 에너지 소비의 3% 수준에 해당하는 3,000만Kw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중국에서도 특히 절강성, 강소성, 상해 등 중국 경제 중심지에 1,900만Kw 부족분이 집중되어 있음.

- 이번 출장의 방문기업들도 원활한 전기공급을 위하여 성 정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었음.

2. 미국의 거래관행

□ 방문처 및 주요 면담자

BWS Tech, Inc.
President, Ryan H. Kim
2275 East Bayshore Road, Ste. 103
Palo Alto, CA 94303

Tetradyne Inc.
President, John J. Son
3173 Independence Drive
Livermore, CA 94551

Become, Inc.
Staff Engineer, Baisub Lee
640 W. California Avenue,
Sunnyvale, CA 94086

SBDC Silicon Valley
Gail Buettgenback (Business Service Coordinator)
Bob Lane (The Federal Technology Center, Counselor/Instructor)
Entrepreneur Center - 100 E Santa Clara St, First Floor
San Jose, CA 95113

□ 주요 면담내용

○ 미국 출장에서는 중소기업 종사자를 면담하여 대기업과 거래할 때의 거래절차 및 결제관행에 대하여 심층 조사하였음.

□ 미국의 대·중소기업의 거래절차

○ 상호 비밀유지각서(Non Disclosure Agreement; NDA) 교환

- 거래의 첫 단계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기업의 영업비밀 등에 대한 비밀유지각서를 서로 교환하는 것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비밀유지각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비밀유지를 약속하는 것임.

○ 계약(Contract, Purchasing Agreement) 체결

- 구매계약을 체결함.

○ 공급업체 등록(Supplier Registration)

- 대기업의 공급업체로 등록함.

○ 중소기업이 견적(Quatation) 발송

○ 대기업이 주문서(Purchase Order; PO) 발행

- 대기업이 발행하는 주문서에는 상세한 거래조건(금액, 지급기일 등)이 명기됨.

- 지급기일은 통상 30일 혹은 60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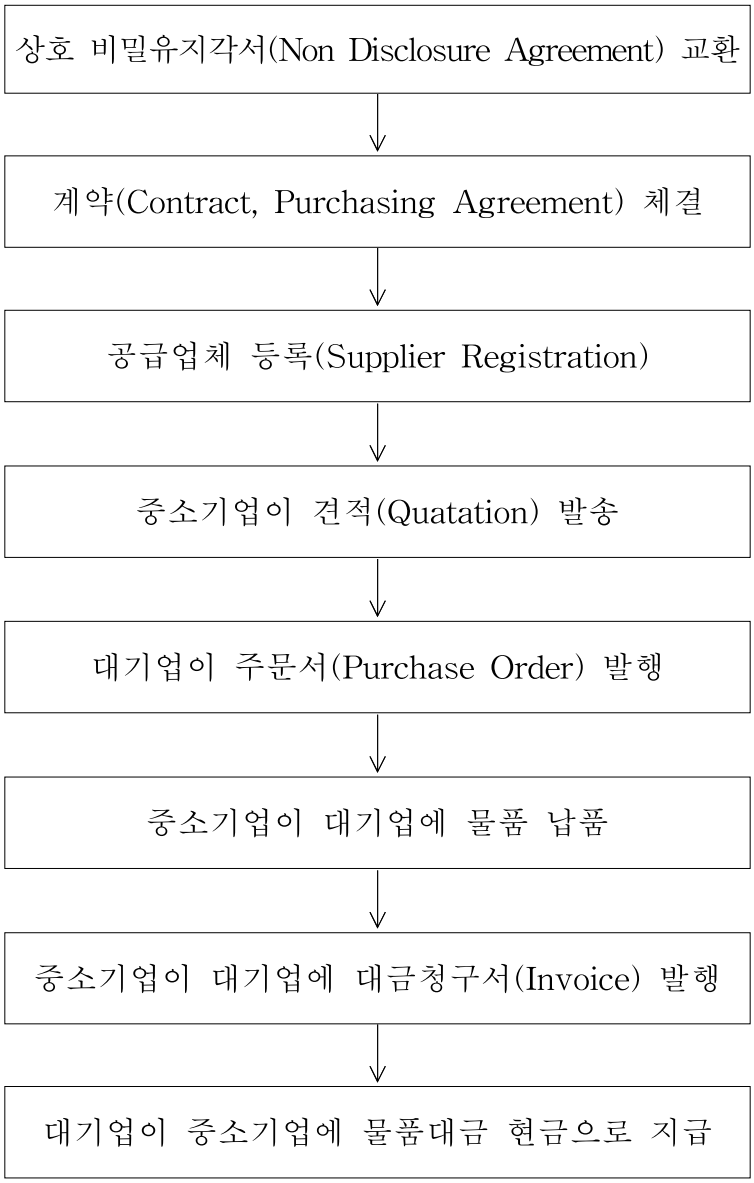
○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물품 납품

○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대금청구서(Invoice) 발행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물품대금 현금으로 지급

-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대금청구서 발행일자 기준으로 주문서에 명기한 지급기일에 따라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함.

< 미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절차도>



□ 미국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의 시사점

○ 미국에서는 모든 거래가 서면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각자의 의무와 권리가 분명함. 이로 인하여 거래과정 및 사후에 분쟁의 여지가 적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중소기업이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음.

- 우리나라에서는 서면계약이 아니라 구두계약이 관행화되어 있어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미국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비밀유지각서를 교환함으로써 서로의 기업비밀을 엄격하게 지켜야 함. 이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할 때 기술자료의 유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음.

-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자료 혹은 영업비밀을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

○ 미국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거래할 때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함. 이에 따라 한 기업의 리스크가 다른 거래기업에 전가되는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어음결제 관행이 존재해 왔는데, 최근에는 어음대체결제수단(현금성 결제)이 고안되어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금결제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임.

○ 미국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거래할 때 주문서에 결제기간 등이 명시되며, 중소기업은 주문받은 물품을 납품한 즉시 대금청구서를 발송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도 검사 등을 이유로 대금결제를 지연함으로써 대기업의 자금부담을 중소기업에 손쉽게 전가할 수 있음.

○ 우리나라 대·중소기업의 후진적이고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관행은 미국과 같이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거래관행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첨부 > 미국 대·중소기업 거래단계별 계약서 양식 사례

1. 상호 비밀유지각서(Non Disclosure Agreement; NDA) 양식 사례

2. 구매계약서(Purchasing Agreement) 양식 사례

3. 공급업체 등록(Supplier Registration) 평가 양식 사례

4. 공급업체 거래은행 등록 양식 사례

5. 견적서(Quatation) 양식 사례

6. 주문서(Purchase Order; PO) 양식 사례

7. 대금청구서(Invoice) 양식 사례